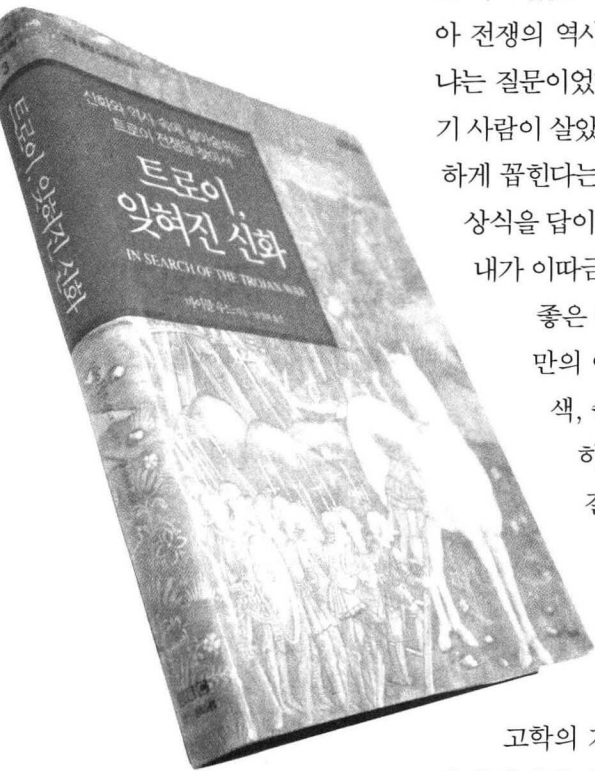


《트로이, 잊혀진 신화》

'이야기' 너머를 가리키는 이정표



글_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트로이 잊혀진 신화 마이클 유브 지음 | 남경태 옮김 | 중앙M&B | 461쪽 | 원 23,000원

이따금 우연히 일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 대학에서 신화 강의를 하고 있는 후배에게서 메일이 왔다. 유명한 서양고전학자 핀리(M. Finley)가 트로이아 전쟁의 역사성을 부인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 현재 학계의 대세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보통 터키의 히사를리크라는 곳이 역사적 트로이아로 여겨지며, 거기 사람이 살았던 9개의 유적층 중에서 VIIa라는 층이 우리에게 알려진 트로이아로 유력하게 꼽힌다는 것,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상식을 답이랍시고 적어 보내놓고 나니 스스로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따금 이용하는 지역도서관에 들렀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것이다.

좋은 책이다. 보통 트로이아 발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쉴리만의 이름 정도나 기억하고 있기 쉬운데, 이 책은 그 이전 사람들의 관심과 탐색, 쉴리만 이후의 발굴과 다른 지역의 발굴 성과들을 전해주고, 무엇보다도 히타이트 문서들과 '해양민족'을 통해 트로이아 전쟁의 전모를 재구성하길 시도한다. 그냥 신화책에 소개된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큰 재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내게 재미있었던 부분을 꼽자면, 쉴리만과 되르펠트, 그리고 심지어 에반스마저도 다소간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발굴을 강행했던 데 반해, 이들에게 발견되지 않아 무사했던 필로스는 나중에 근대 고고학의 기법으로 세심하게 발굴되었다는 것, 에반스 같은 권위있는 학자도 미노아 문명권이 뤼케나이 지역을 차지했었다고, 현대의 주된 해석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것으로, 트로이아의 목마가 사실은 목마 모양의 공성(攻城)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등이다(그림이 많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 중 하나인데, 이 '목마 공성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마지막 부분의 아시리아 부조를 찾아보시기 바란다).

위낙 박식하고 꼼꼼한 역자가 옮긴 책이라 그런지 틀린 곳이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호메로스와 관련된 부분들에는 몇 가지 잘못들이 보인다. 가령 아킬레우스가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에서 "포로로 잡은 트로이 귀족 12명을 올려놓고 화형에 처했다"(39쪽)고 한 것은 산 채로 태워 죽였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 사실은 칼로 먼저 목숨을 끊은 후(《일리아스》 23권 176행) 함께 태운 것이다. 그리고 트로이아 함락 과정에 아테네 여신의 사제인 캄산드라를 겁탈해서 희랍군 전체에 재앙을 가져온 인물은 "꼬마 영웅 로크리스의 아이아스"(43쪽)라고 소개되었지만, 그는 정말 '꼬마'인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와 구별하기 위해, '작은 아이아스'라고 불렸을 뿐이다. 과학적 방법으로 발굴된 네스토르의 도시를 "필로스 모래밭"(190쪽)이라고 소개한 것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은 '모래가 많은 필로스' 여야 한다.

이런 실수들보다 눈에 더 잘 띄는 것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절들을 직접 인용해 놓은 부분이다. 가령 《오뒷세이아》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크레테의 미노스 왕이 크노소스에서 "90년 동안이나 다스"(152쪽)렸다고 했는데, 이는 '아홉 살 때부터' (19권 179행)의 잘못이다. 또 《일리아스》에서는 전차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만 쓰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전차를 탄 채 전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구절로, "자기 전차에서 내린 다음 적의 전차와 마주쳤을 때는 창으로 적의 다리를 찌르도록 하라"(214쪽)는 충고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 자기 전차에서/ 적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을 때는 누구든지 창을/ 던지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4권 305행 이하)가 될 것이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5장의 글머리로 쓰인 인용문(《일리아스》 2권 101행 이하)이다. "힘센 아가멤논은/ 헤파이스토스가 ... 만들어준 왕홀을 쥐고 서 있었다./ ... 헤파이스토스는 그것을 ... 제우스에게 주었고/ 제우스는 조신 아르게이폰테스에게 주었고/ 헤르메스 경은 마부인 펠롭스에게 주었고/ 펠롭스는 양치기인 아트레우스에게 주었고"(238쪽), 그것이 튀에스테스를 거쳐 아가멤논에게까지 왔다는 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물들의 수식어인데, 헤르메스의 별칭인 '아르게이폰테스' 앞에 붙을 말은 "조신"이 아니라 '신들의 전령' 이고, 그 헤르메스는 "경"이 아니라 '왕(anax)'이며, 마차경주로 아내를 얻어 큰 왕조의 창시자가 된 펠롭스는 그냥 "마부"가 아니라 '말을 모는 자'가 될 것이고, 아가멤논의 아버지인 아트레우스는 왕이었으므로 그냥 "양치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목자' 여야 한다.

트로이아 앞의 희랍군들이 배를 어떤 식으로 해안에 끌어올려두었는지를 설명하는 인용문(《일리아스》 14권 35행 이하)도 혼란을 주게 되어 있다. "처음에 도착한 배들이 평원 쪽으로 이물을 돌리고 정박하자/ 그들은 고물 쪽을 방어하기 위해 진지를 차렸다./ 해변은 상당히 넓게 뻗어 있으나/ 그 많은 배들이 정박하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 / 그래서 그들은 배를 저어 내륙으로 들어왔다"(420쪽). 이 인용문에 따르면 배들이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향한 채 정박했는데, 사람들은 배 뒤쪽을 방어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한 것이 된다. 얇은 바다에 뭔가 울타리를 쳤다는 것일까? 그리고 또 정박할 곳이 모자라서 희랍군 일부는 강을 타고 내륙으로 진입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면 군대가 분산되어 있었던 말인가?

사실 이런 문제들에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니, 바로 천병희 교수의 번역을 보는 것이다. '그들(네스토르 일행)의 함선들은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들만에 끌어올려져 있었고, 방벽은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함선들 앞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물기습이 낡다고는 해도 함선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고 또 백성들도 좁아서 불편을 느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함선을 여러 줄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이 번역을 보면 그림이 어렵지 않게 떠오른다. 바닷가에 배들이 여러 줄로 끌어올려져 있고, 방벽은 배들 전체를 둘러싸고 육지 가장 깊은 곳에 둘러쳐져 있었던 것이다. 《일리아스》 서두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느 신이 엄청난 분노로써 그들을 전쟁으로 몰아갔는가?" (424쪽) 라고 한 것은,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의 '다툼'을 "전쟁"이라 했으니 너무 과장이 심하다.

그밖에 '도기' (vase)라고 해야 할 데서 "꽃병" (109, 128, 172쪽 등)이라고 한 것은 많은 역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잘못이다. 이 도기들은, 굳이 거기에 꽃을 꽂자면 못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여러 형태, 여러 크기의 것으로 제 나름의 용도가 각기 있었다.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무구 중 실제로 유물이 발견된 사례로서 멧돼지 이빨을 바깥쪽에 붙인 투구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 책에는 "멧돼지 어금니 모양의 투구" (192, 212쪽), 또는 "멧돼지 모양의 투구" (255쪽)로 치칭하고 있다. 투구 전체의 모양이 멧돼지나 멧돼지 이빨을 닮은 것은 아니니, 그냥 '멧돼지 이빨(어금니) 투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리아스》 2권에 나오는 트로이아 쪽 동맹군의 목록은 그냥 "트로이 목록" (401쪽)이라고 해서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트로이아 군대 목록'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전체적으로 썩 잘 된 번역인데 그저 몇 가지 고쳤으면 하는 점을 꼽아보았다. 역자께서는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라며, 다른 독자들께서는 이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책에 다시 한번 눈길과 손길을 보내셨으면 한다.

아,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일리아스》의 트로이아가 VIIa가 아니라 VI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나로서는 이 대담한 주장과 '상식'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좀 고민이 생겼다. 핀리가 트로이아 전쟁의 역사성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었냐고? 아,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노학자께서 '영광스럽게도' 이 책의 초판에 격렬히 항의하셨단다. 그렇지만 2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고인이 되셨다. 